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3. 16

전남농업정보

25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수급 동향

과채 수급 동향 및 전망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류,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진도산 배추 120t 대만 수출길 오른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가공용 벼 '보람찬' 쌀 가공 산업 활력

정책동향

천연아로마오일 생산으로 아로마힐링 6차 산업
활성화 기대

해외 농업정보

일본 기상청, 올여름 엘니뇨 발생가능성 상향조정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 봄철 과일채소류 공급 많고 소비부진 반등 역부족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채 : 딸기, 토마토, 오이, 풋고추

- 딸 기 : 딸기 3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1만 2천~1만 4천원 전망
- 토마토 : 3월에도 일반토마토 출하량 여전히 많아 가격은 작년보다 27% 낮을 전망
- 오 이 : 백다다기·취청오이 3월 가격은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 풋고추 : 풋고추 3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청양계는 상품 10kg에 7만 2천~7만 7천원, 녹광은 7만 1천~7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축산물 : 산란계, 육계, 오리

- 산란계 : 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5% 하락한 1,200~1,300원(특란 10개)으로 전망
- 육 계 : 병아리 생산 감소로 3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한 5,956만 마리 전망
- 오 리 : 3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 하락(평년 대비 4.5% 상승)한 7,000~7,500(3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진도산 배추 120t 대만 수출길 오른다
- ▶ 전남 농식품 올 수출 5000만달러 달성 결의
- ▶ 쌀 수출 자유화 ... 장관추천제 폐지
- ▶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개방 두렵지 않다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가공용 벼 '보람찬' 쌀 가공 산업 활력
 - 가공 제품 제조 기술 등 특허출원 6건, 기술이전 13건
- ▶ 작물 온도 장애 발생하면 양분 공급해도 효과 없어
 - 농촌진흥청, 온도 장애 발생 시 양분 공급 효과 분석
- ▶ 나리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 길 열려
 - 포식성 천적과 끈끈이트랩으로 피해 5% 내로 줄일 수 있어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업기술원)

- ▶ 천연아로마오일 생산으로 아로마힐링 6차 산업 활성화 기대
- ▶ 국립종자원, 건전한 과수묘목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조사 실시
- ▶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 ▶ 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에 161억원 투입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일본 기상청, 올여름 엘니뇨 발생가능성 상향조정
-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저가매수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하락세였으나, 금일 하락세를 꺾고 반등
 -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수세로 상승
 -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매수세로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농민신문)

- ▶ '40주 농법'으로 벼 수확량 40% 늘린 양부섭씨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발작물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공모

- 공모기간 : 3. 11. ~ 3. 25.
- 공모대상 : 콩, 마늘, 양파 주산지 5ha이상 생산 집적화단지 소재 영농조합 또는 법인
- 대상기종 : 파종(이식)부터 수확용 기계까지 일관기계를 선정
- 신청기관 : 주산지 시군에 사업신청

▶ 20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공개경쟁 선정 공고

- 접수기간 : 3. 10. ~ 3. 19.(10일간)
- 접수장소 : 전라남도 축산과
- 접수대상 : 농식품부, 식약처 HACCP컨설팅 등록업체
- 접수서류 : 제안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3. ~ 12./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3. 1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16)	전주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1,100	41,400	43,600	41,053	↓ 6.4	↓ 0.6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40,000	142,000	182,800	↓ 4.2	↓ 25.6
	고구마(밤)	10kg	28,200	27,400	23,400	18,650	25,273	↑ 51.2	↑ 11.6
	감자(수미)	20kg	35,200	34,600	29,640	17,600	28,200	↑ 100.0	↑ 24.8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480	470	434	360	1,065	↑ 33.3	↓ 54.9
	양배추	10kg	6,000	6,100	5,940	4,000	6,320	↑ 50.0	↓ 5.1
	오이(다다기계통)	15kg	36,667	42,667	60,667	53,917	55,300	↓ 32.0	↓ 33.7
	애호박	8kg	22,600	24,000	35,320	28,750	26,873	↓ 21.4	↓ 15.9
	토마토	10kg	30,200	28,800	28,320	35,050	33,495	↓ 13.8	↓ 9.8
	무(월동)	1kg	480	480	522	433	-	↑ 10.9	-
	당근	20kg	20,800	20,600	19,240	18,200	24,613	↑ 14.3	↓ 15.5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50,000	814,000	↑ 26.2	↑ 0.7
	풋고추	10kg	65,200	94,200	114,400	87,350	86,957	↓ 25.4	↓ 25.0
	마늘(난지)	10kg	35,200	35,200	34,600	27,400	35,850	↑ 28.5	↓ 1.8
	양파	1kg	670	670	544	722	905	↓ 7.2	↓ 26.0
	대파	1kg	1,450	1,450	1,492	1,250	1,886	↑ 16.0	↓ 23.1
	파프리카	5kg	28,400	24,400	32,360	27,350	32,590	↑ 3.8	↓ 12.9
	방울토마토	5kg	16,600	15,800	16,680	30,600	25,993	↓ 45.8	↓ 36.1
	딸기	1kg	8,200	9,600	12,720	9,325	8,645	↓ 12.1	↓ 5.1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2,400	61,600	62,640	86,300	78,767	↓ 27.7	↓ 20.8
	배(신고)	15kg	39,800	37,800	36,120	44,400	46,111	↓ 10.4	↓ 13.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16)	전주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8,000	534,000	568,667	↓ 1.1	↓ 7.2
	들깨	45kg	426,000	426,000	430,000	450,000	371,667	↓ 5.3	↑ 14.6
	새송이버섯	2kg	8,600	8,800	10,920	8,200	-	↑ 4.9	-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14	6,537	6,654	5,859	5,768	↑ 12.9	↑ 14.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36	1,915	1,883	1,881	1,636	↑ 2.9	↑ 18.3
	닭고기	1kg	5,511	5,546	5,055	5,994	5,982	↓ 8.1	↓ 7.9
	계란(특란)	10개	1,962	1,951	1,988	1,940	1,782	↑ 1.1	↑ 10.1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53	↑ 0.2	↑ 13.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3. 16.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02 천원	4,752 천원	4,066 천원	↓ 1.1	↑ 15.6
	거세	5,375 "	5,375 "	5,357 "	-	↑ 0.3
송아지 (6~7월)	암	1,988 "	1,876 "	1,410 "	↑ 6.0	↑ 41.0
	수	2,480 "	2,324 "	2,236 "	↑ 6.7	↑ 10.9
육우(600Kg)		3,736 "	3,475 "	2,713 "	↑ 7.5	↑ 37.7
젖소수송아지(7일령)		50 "	50 "	16 "	-	↑ 212.5
돼지(110kg)		363 "	381 "	386 "	↓ 4.7	↓ 6.0
육계(원/kg)		1,739 원	1,809 원	1,786 원	↓ 3.9	↓ 2.6
계란(원/특란10개)		1,258 원	1,264 원	1,325 원	↓ 0.5	↓ 5.1
오리(원/kg)		2,500 원	2,166 원	2,500 원	↑ 1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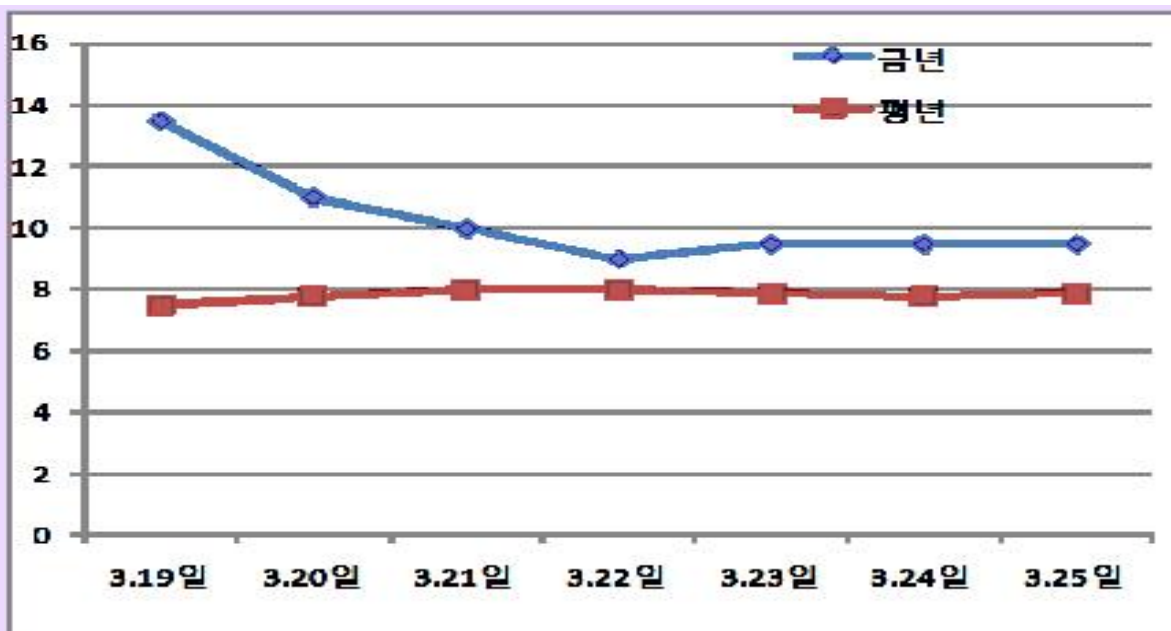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0.3	7.8	2.4	15.0	13.2	1.8	5.6	3.8	-1.5	2.5
3. 19(목)	13.5	7.5	6	16	13.2	2.8	11	3.2	-7.8	2.4
3. 20(금)	11	7.8	3.2	16	13.5	2.5	6	3.6	-2.4	2.6
3. 21(토)	10	8	2	15	13.6	1.4	5	3.9	-1.1	2.7
3. 22(일)	9	8	1	14	13.3	0.7	4	4.1	-0.1	2.7
3. 23(월)	9.5	7.9	1.6	14	13	1	5	4.1	0.9	2.7
3. 24(화)	9.5	7.8	1.7	15	13	2	4	4	0	2.4
3. 25(수)	9.5	7.9	1.6	15	13	2	4	4	0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수급 동향

과채 수급 전망[농업전망 2015]

□ 수급 동향

- 2014년 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은 풋고추와 참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신규 시설 증가와 품목 전환 등으로 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7% 증가한 54,716ha이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호조로 단수도 늘어 전년보다 10% 증가한 245만 톤으로 추정된다.
- 품종별로는 대추형 방울토마토와 오이맛고추의 재배면적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딸기는 국산품종의 정식비중이 86%까지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참외는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배시설 개선과 대과종으로의 품종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00년 이후 과채류 실질가격은 오이, 호박, 풋고추 등의 채소과채가 연 2.7%, 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인 과일과채는 연 2.6%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개년을 비교해볼 때 풋고추는 반입량 감소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는 반입량 증가로 하락하였다.
- 과채류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4년에는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10% 증가한 48.7kg로 예상된다. 채소과채는 2000년 이후 연 0.7%씩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과일과채는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오이, 풋고추, 수박, 참외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호박, 토마토, 딸기는 증가하고 있다.

□ 2015년 상반기 전망

- 2015년 상반기 오이와 애호박 출하량은 영·호남지역의 겨울작형이 지속되고, 충청·경기지역의 봄작형 출하면적도 증가하여 기상이변이 없는 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풋고추는 영남지역의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출하량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토마토와 딸기의 2015년 상반기 출하량은 주산지의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의 경우는 정식면적이 감소하였지만 2014년 하반기에 정식이 집중되어 2015년 2~3월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박 출하량은 영남지역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급 전망

- 2015년 채소과채 재배면적은 오이가 전년보다 감소하겠으나, 호박과 풋고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시설화로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박과 풋고추는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생산량이 1~6%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이와 풋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으나, 호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과일과채 재배면적은 토마토와 딸기가 전년보다 각각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박과 참외는 각각 1%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수박의 경우 재배면적이 감소하는데다, 기상호조로 작황이 크게 좋았던 전년보다는 단수도 줄어 생산량은 전년대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수박, 참외, 딸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봄철 과일채소류 공급 많고 소비부진 반등 역부족

경기침체 여파로 요식업소 등에서 주문 뜸해
대형마트 판촉행사 기간 참외 등 값 오를수도

- 딸기·토마토 등 봄철 과일채소류가 공급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딸기는 9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상품 2kg들이 한상자당 평균 1만 30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2000원 낮은 시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가 최근 발표한 농업관측에 따르면 이달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주산지인 충남 논산과 경남 산청에서 재배를 확대한 데다 경남 밀양과 경북 고령에서 딸기로 작목을 전환한 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평균 도매가격은 1만2000~1만4000원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있다.
- 강남규 농협 가락공판장 경매사는 “일부 주산지에서 1월말~2월 초 병해 여파로 수확량이 적어 수취가격은 농업인들의 기대 수준

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토마토는 최근 상품 5kg들이 한상자 가격이 1만70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000원 내렸다. 이달 공급량은 경북 경주에서 아주심기가 늘고 충남 청양에서는 출하를 앞당겨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방울토마토는 대추형의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많아 원형과 대추형 모두 약보합세다.
- 원형은 상품 1kg당 35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800원 낮고, 대추형은 4300원 선으로 2200~3000원 떨어졌다. 농경연은 이달 토마토 평균 도매가격이 지금보다 2000원 정도 하락한 1만4000~1만6000원 선, 원형·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현 수준의 약보합세로 전망했다.
- 참외는 2~8일 가락시장에서 상품 10kg들이 한상자가 평균 6만원 선에 거래됐다.
- 시장 관계자들은 “지난해 이 시기보다 1만4000원 정도 오른 시세지만 출하량이 늘고 있어 이달 하순엔 지금보다 3000~5000원 낮은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일 것 같다”고 내다봤다.
- 이재희 (주)중앙청과 경매부장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요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주문이 뜸하다”면서 “보통 설 대목 2주 후엔 소비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영향으로 참외 가격은 이달 셋째주말(12~14일), 토마토는 마지막 주말(26~28일)에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민신문('15. 3. 11.)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채 : 딸기, 토마토, 오이, 풋고추

○ (딸 기)

- 딸기 3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1만 2천~1만 4천원 전망

○ (토마토)

- 3월에도 일반토마토 출하량 여전히 많아 가격은 작년보다 27% 낮을 전망

○ (오 이)

- 백다다기·취청오이 3월 가격은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 (풋고추)

- 풋고추 3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청양계는 상품 10kg에 7만 2천~7만 7천원, 녹광은 7만 1천~7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축 산 물 : 산란계, 육계, 오리

○ (산란계)

- 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5% 하락한 1,200~1,300 원(특란 10개)으로 전망

○ (육 계)

- 병아리 생산 감소로 3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한

5,956만 마리 전망

-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한 4,589톤 전망
- 3월 닭고기 공급 감소와 국내산 수요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 전망

○ (오 리)

- 3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2% 하락(평년 대비 4.5% 상승)한 7,000~7,500(3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진도산 배추 120t 대만 수출길 오른다

- 양배추 400t도 수출계약 -

- 진도산 배추가 해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한다.
- 진도군은 “진도산 겨울배추 120여t(6600여만원)을 대만으로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겨울배추 20t이 부산항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며, 나머지 100t은 이달말까지 수출된다.
- 또 2015년산 양배추 400여t도 대만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 우리나라 최남단 청정지역에 자리한 진도지역은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온난한 기후로, 겨울 대파와 배추, 양배추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 지난 2009년 대만과 일본에 3600t의 배추와 양배추를 수출한데 이어 2010년에 대만과 일본에 1600t을 수출한 바 있다.
- 군은 채소류 가격 하락과 과잉 생산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수출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도군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로 감동 주는 ‘진도 행복농업’ 실현을 통한 4개년 계획을 수립, 철저한 유기농업 육성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 농업소득 5000억원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농식품 올 수출 5000만달러 달성 결의

- 농협 전남본부 수출 발대식 -
-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올해 50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본부 강당에서 전남도,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경제부, NH무역 등 60여명의 수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전남 농식품 수출 발대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 이날 발대식에는 전남도의 수출진흥책, 농협중앙회의 수출활성화 지원제도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우수 수출농협인 나주배원에 농협과 두원농협의 배와 유자차 수출 사례도 전파하는 등 수출 확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 올해에는 도내 유관기관간 연합수출조직을 육성하고 수출 신품목을 개발해 지난해 두 배인 5000만 달러를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도 단위 연합수출조직을 육성하고, 수출 신품목을 개발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aT와 연계한 연합수출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산지유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 강남경 본부장은 “전남 농협지역본부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팀을 신설하고 2명의 수출전담인력을 배치했다”며 “수급불안 품목 및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이 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광주일보

■ 쌀 수출 자유화 ... 장관추천제 폐지

- 정부가 쌀 수출시 장관 추천을 받도록 한 절차를 없애, 누구나 쌀 수출이 가능토록 한다. 쌀 관세화 등 개방화 추세에 맞춰 수출도 자유롭게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
- 그간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다.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됐고,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했다.
- 이 같은 절차상의 불편함 때문에, 쌀 수출량은 미국과 호주 등 교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 1754톤, 2014년 1992톤에 불과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쌀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18일 쌀 관세화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18일에는 관세율 513%를 발표했다. 이후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 수정 절차를 거쳐 지난 1월1일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국산 쌀 비용절감을 위한 조직화·규모화 정책을 펴고 있다.
- 해외 쌀 시장조사, 상품화 지원사업, 농가·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국산 쌀 수출 핸드북' 발간 등도 추진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개방 두렵지 않다.

- 농식품부, '20년 매출 1조원, 2천만불 수출산업으로 육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FTA·TPP 등에 따른 시장개방·규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은 '20년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1조원('13년 4,908억원), 수출 2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특히, 1차 농산물 생산·유통에 집중되었던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등성 협정 등을 활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유기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매칭펀드식 시장 공동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주요 수출 유망국가(미국·EU·중국)별 수출전략을 탐색('15상, aT)할 예정이다.

○ 현지 소비자·유통업체 정보 파악을 위하여 농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13: 9개 → '17: 20)와 농식품 수출 서포터즈('14: 46명/3개국 → '15: 100/10)」운동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K-FOOD FAIR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유기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자본조달 능력 확충과 경영위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문 투자펀드 조성*('15, 100억원)을 추진하고, 환변

동보험료의 정부 지원율을 상향조정('14: 보험료의 90% → '15: 95)을 통해 수출업체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둘째,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 유기식품 소비 붐(boom)을 조성할 계획이다.

-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신규개발 기술을 발굴하
되, 가공·유통기술의 2개 분야(5개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 추진
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 '16년까지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다류, 쌀가공품 등에 대해 특허
등 사전 성과를 보유한 기업체와 함께 관련 제조기술 개발('14
하~, 18억원)을 추진하되,
-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단기(현장애로 기술, 즉시 제품화 가능 기
술), 중장기 과제(내수·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품목 개발 및
관련기술)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교육 등 원스톱 체험이 가능
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15년 1개소, 200억원 투
자)하고 '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
단위 유기식품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셋째,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
해 신시장 발굴, 기업-농업간 상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신시장 발굴을 위해 소비계층 분석을 추진하고,
유기농산물 가치도 기존 '안전한 농식품' 위주에서 '환경보전·고품
질'의 공익적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대도시 인근 로컬푸드 매장 내 유기가공식품 전문 코너 마련, 신규·

소규모 가공업체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인터넷 판매도 추진된다.

- 특히, 제조·유통업체의 “가치소비” 참여 분위기를 유기가공식품산업 저변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농업인·기업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유기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산업발전 협의체 구성, 유지원료 공급망 확충,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컨설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유기가공산업 비전 등을 협의할 정책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 세부방안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개·보수를 통한 유기농 전문단지를 조성(‘15~’17, 3개소)하고, 콩·밀 등 주요 10개 품목의 종자·재배 기술을 지원한다.
 - 특히,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15.하)하여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과 연계(품목별 생산량·주산지 등의 정보 제공)함으로써 식품·외식 기업의 원료수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아울러, 영세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맞춤형 컨설팅 등 초기 지원과 함께 시설 개보수 등 기업체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영세 가공업체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개보수 자금과 HACCP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14: 2개소 → '17: 10)도 추진한다.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1조원, 연간 2천만불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가공용 벼 ‘보람찬’ 쌀 가공 산업 활력

- 가공 제품 제조 기술 등 특허출원 6건, 기술이전 13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개발한 가공 전용 쌀 품종 ‘보람찬’이 빵, 떡, 과자, 국수, 막걸리 등의 원료로 이용되면서 쌀 가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9년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확량이 10a당 733kg 정도로 많은 초다수성 벼 ‘보람찬’을 개발했다. 이후 쌀 치즈케이크 등 쌀빵 제조에 관한 특허 6건을 출원했으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산업체 등 13곳에 기술을 이전했다.
- 기술을 이전받은 경영체 3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 매출 증가율이 평균 16.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주)강동오케익은 해마다 약 10ha를 농가와 계약 재배하고 과자류, 빵, 케이크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2% 성장한 10억 3,900만 원이었다. 고향식품은 2011년부터 지역의 작목반과 약 21ha를 계약 재배해 농가 소득을 올렸고 여기서 생산한 원료미로 명품 떡 ‘모싯잎 송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성장한 5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오성제과는 계약 재배한 ‘보람찬’ 원료미를 이용해 누룽지, 약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8.6% 성장한 20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들 경영체는 기존 농업의 생산 중심에서 법인이나 영농조합 등

사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처럼 농가와 산업체 간의 계약 재배가 늘면서 재배 면적도 따라 늘었다. 현재 전남 영광, 전북 김제와 익산, 충남 서산, 경기 김포 등을 중심으로 약 3,283ha에서 재배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보람찬’ 벼를 이용하는 경영체들의 경제성을 추가로 분석해 발전 방안을 찾아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하기용 박사는 “최종 목표는 농가의 소득 향상과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안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 확산하는 데 있다.”라며, “이를 위해 쌀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배가 쉽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작물 온도 장애 발생하면 양분 공급해도 효과 없어

- 농촌진흥청, 온도 장애 발생 시 양분 공급 효과 분석 -

- 토마토, 상추 등 시설 재배 작물이 갑작스런 기온 변화로 잘 자라지 못하면 양분을 공급해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온 변화에 따른 시설 재배 작물의 생육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온도 장애 발생 시 양분 공급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저온(토마토 20℃ 이하, 상추 15℃ 이하)이나 고온(토마토 36℃ 이상, 상추 28℃ 이상)의 온도 장애가 생기면 토마토는 15%~30%, 상추는 약 60%가 잘 자라지 못했다. 이때 무기

양분의 흡수량은 토마토가 저온에서 50%~85%, 고온에서 63%~89%로 나타났다. 상추는 흡수량이 더 낮아 저온에서 15%~36%, 고온에서 22%~30% 밖에 흡수하지 못했다. 무기양분 중에는 질소가 15%~60%, 칼륨 15%~50%로 가장 낮은 흡수량을 보였다.

- 또, 온도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토마토와 상추 모두 양분을 추가로 공급해도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상추는 고온일 때 양분을 추가 공급하면 오히려 생육과 양분 흡수량이 급격히 낮아졌다.
- 이에 따라 시설 재배 작물을 재배할 때 환절기의 기온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피해를 막으려면 먼저, 내부 순환팬 가동, 시설하우스 옆면 개방, 지중열과 열풍 공급, 작토층 열선 처리, 물 주머니 설치 등을 이용한 온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성좌경 연구사는 “갑자기 기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면 작물의 광합성, 증산량, 양분과 수분 흡수 감소 등을 일으켜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며, “시설 재배지 환경 관리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후 양분과 수분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나리 ‘작은뿌리파리’ 친환경 방제 길 열려

- 포식성 천적과 끈끈이트랩으로 피해 5% 내로 줄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포식성 천적과 끈끈이트랩을 이용하면 작은뿌리파리를 효과적으로 방제해 나리의 꺾은 꽃(절화)과 알뿌리(구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주요 나리 생산지인 강원, 충남, 제주 등은 작은뿌리파리로 인해 꺾은 꽃 30.2%~44.8%, 알뿌리 28.0%~43.4%의 생산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나리 재배 농가에서 작은뿌리파리에 의한 알뿌리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토양 전염성 병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작은뿌리파리는 토양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 시기가 늦어지면 피해는 더 커진다. 더욱이, 현재까지는 작은뿌리파리 방제를 위한 등록 약제도 없는 실정이다.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나리 생산 감소의 주범인 작은뿌리파리를 포식성 응애인 마일즈응애와 황색 끈끈이트랩으로 친환경 방제를 하면 피해를 5% 내로 줄일 수 있었다.
- 본밭에 아주심기를 할 때, 뿌리 부분의 토양에 마일즈응애를 10a당 3만 마리(3병)를 2주 간격으로 3회 골고루 흩어 뿌려준다. 이렇게 뿌리면 응애가 스스로 토양 내로 이동하면서 작은뿌리파리의 알, 유충과 번데기를 먹이로 해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황색 끈끈이트랩은 2m~3m 간격으로 나리의 뿌리 부분의 토양이나 새로운 가지의 20cm 이상 위에 설치하면 작은뿌리파리 성충을 유인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작은뿌리파리 알, 애벌레, 번데기는 토양 속에 살고 어른벌레는 토양 위나 지상부¹⁾의 식물체에 살기 때문에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포식성 응애와 끈끈이트랩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 또한, 포식성 응애를 이용할 경우 작은뿌리파리와 함께 뿌리응애나 작은 크기의 다른 토양 서식성 해충도 잡아먹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김형환 연구사는 “등록되지 않은 살충

제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저항성 개체가 나타나 방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성과로 생산량이 줄어 고민이던 국내 나리 재배 농가에 작은뿌리파리를 친환경 방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림과 동시에 생산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천연아로마오일 생산으로 아로마힐링 6차 산업 활성화 기대

- 전남농업기술원 천연정유생산 특허기술 (주)죽력원에 기술이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지난 11일 전남지역에서 자생 및 재배되고 있는 향료자원을 이용 자생쭉 등 천연아로마오일 생산 기술을 도내 기업체인 (주)죽력원에 기술이전 하였다.
- (주)죽력원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인증 기업체” 및 “품질경영시스템인증 (ISO 9001, 2008년)”을 받은 내 실 있는 전통발효식품 전문기업체이다.
- 이와 함께 전남 화순에 폐교를 매입하여 2014년부터 “죽력원 힐링센터”를 운영하던 중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특허인 천연정유생 산 기술이전 받아 힐링체험장에 설치하여 자생쭉(조도쭉, 물쭉, 개똥쭉), 산국, 편백 등 천연 아로마오일과 천연화장수를 생산하 여 체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아로마힐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 힐링체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이었던 아로마와 관련한 스파, 찜질, 마사지, 족욕 등에 사용되는 아로마테라피오 일 및 아로마 관련제품들을 그동안 전량 수입의존으로 비용이 비 싸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주)죽력원 대표는 이제는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 천연의 아로마오일 등을 직접 자체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내수화로 누

구나 쉽게 아로마테라피를 즐길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 식품경영연구소 조경숙박사는 이번 죽력원의 기술이전은 아로마 힐링 6차산업화의 활성화에 의의가 있으며 아로마 힐링산업과 관련한 제품개발은 물론 지역의 풍부한 농수산물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6차 산업형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고부가가치 향료산업 개발 및 육성의 일환으로 전남농업기술원과 관련 지역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향료 R&D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전남농업기술에서는 2012년도에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된 향료생산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체인 “뷰다스”와 “천오(뉴뷰다스)” 등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특히 천오는 편백방향제로 연간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립종자원, 건전한 과수묘목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조사 실시

-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이하 종자원)은 과수묘목 유통성수기와 묘목 축제를 앞두고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을 투입하여 합동조사 등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는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경산,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과수묘목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 또한, 유통조사 지역의 지자체(시·도)와의 합동조사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이며, 불법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맞벌이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년 3월부터 농업인 확인

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하여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됨에 따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및 수질개선사업 집중 추진에 161억원 투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매년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수질개선사업비 161억 원(조사 40억 원, 개선 121억 원)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청정용수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농업용수 수질을 확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수질조사 및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 올해는 GAP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확대(800개소→950개소)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위해 '14년보다 25억 원 늘어난 161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 농식품부는 다시 찾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중점관

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노력을 점검·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와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 수질개선사업 고도화, 퇴적물 측정망 신설,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기술 현장적용 등 다양한 수질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농업용 저수지 수질기준을 초과되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178개소)'로 지정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질개선대책(환경부: 상류 오염원대책, 농식품부: 저수지내 대책)을 추진하고,

- 지방환경청, 지자체, 농어촌공사로 구성된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통해 수질오염 감시 강화, 정화활동,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일본 기상청, 올여름 엘니뇨 발생가능성 상향조정

일본 기상청은 올여름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전월 전망치 대비 50% 이상 상향전망했다. 정상적 기후패턴은 계속될 것이나 엘니뇨 발생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라고 한다. 엘니뇨는 여름에 발생하며 일부지역에는 호우를, 다른 지역에는 가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 현상으로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쌀, 밀, 원당 등 주요 식량생산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3. 12.(시카고 선물거래소)

밀가격, 반등하여 상승세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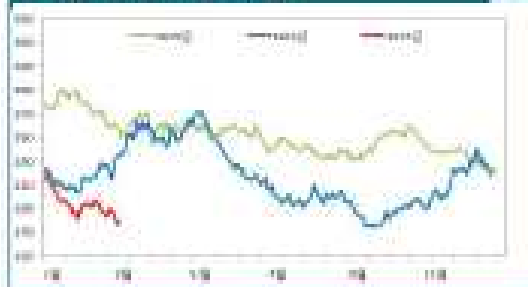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3.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밀	183.35	▲1.2%	190	216
옥수수	153.93	▲0.8%	151	164
대두	364.71	▲0.8%	365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특제연립밀)과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2부, 2월물) 장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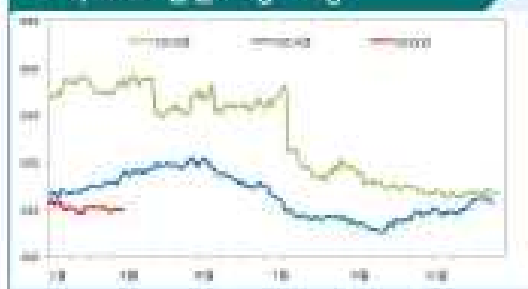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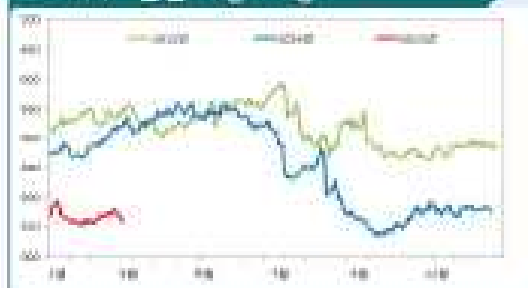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USDA 월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저가매수세 및 환매수세 유입으로 하락세였으나 급입 하락세를 겪고 반등했음. 그러나 풍부한 세계밀 공급으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으며 미국산 밀은 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우려가 높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USDA 월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술적 매수세로 상승했음. 또한 미국 중서부지역의 건조한 천문세 및 일부만 지역의 가공업자들의 판매둔화 역시 가격에 상승압력을 더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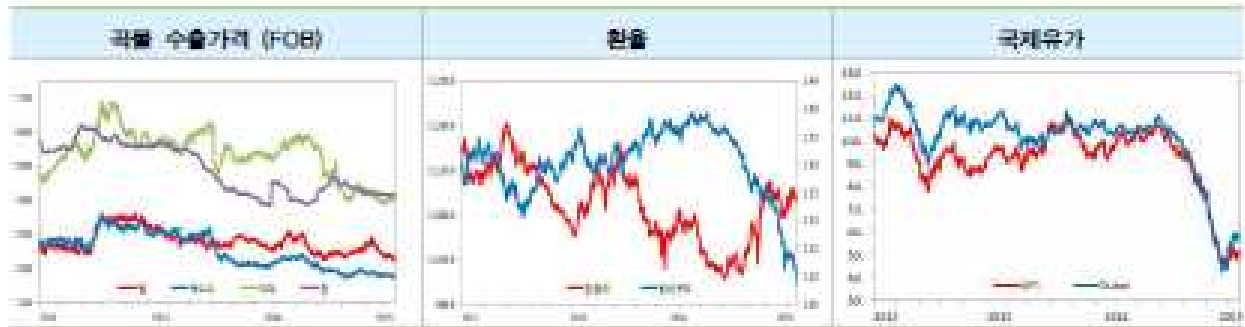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USDA 월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술적 매수세로 상승했음. USDA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년 기밀재고는 2월말 추정치인 385백만 톤에서 약간 감소했다고 함. 또한 브라질의 홍우 및 아르헨티나의 홍수로 인해 작황우려가 높아 미국산 밀 가격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grain.krei.co.kr/>

전망/요약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강세 하락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일평균 ('15.2)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일	221	▼2.2%	236	261	284
	옥수수	176	—	179	205	255
	대두	382	▼1.3%	401	501	556
	쌀	417	—	417	425	488
환율	원/달러	1,100	▼0.1%	1,098	1,053	1,095
	달러/유로	1,084	▼1.7%	1,114	1,33	1,33
국제유가 (USD/barrel)	WTI	49.61	▼2.3%	50.85	92.97	97.94
	Dubai	57.26	▼0.2%	56.05	96.64	105.32

주 1) 1) US (BRW Gulf), 옥수수(40.5), 2) VC Gulf, 대두(40.5), 쌀(Thailand 100% Gra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3.15(수출가격), '15.3.16(환율), '15.3.16(국제유가)이며 자료를 채곡물공사,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에 업데이 트 날짜에 따라 찾아볼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기후여혹센타는 올여름 북반구에 의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50-60%로 확대예측했음.
- 한국 사료협회는 8월 도착분 사료용일 40,000톤을 C&F 기준 217.65달러에 구매했으며 이와 별개로 한국 옥수수가공산 업협회는 6월 도착분 옥수수 55,000톤을 C&F기준 199.75달러에 확보했다고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40주 농법’으로 벼 수확량 40% 늘린 양부섭씨

- 전남 무안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있는 양부섭씨(67·청운면 도대리)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비결을 가르쳐달라는 인근 농가들의 전화에 쉴 틈이 없다. 양씨가 2013년부터 적용해 2년 간 효과를 톡톡히 본 농법 때문이다.
- 양씨의 농법은 논 3.3㎡(1평)당 벼 40주씩을 심는 이른바 ‘40주 농법’이다. 기존에 3.3㎡당 80주 안팎으로 모를 심는 재배법에 비하면 절반이 줄어든 양이다.
- 9년 전 전남도농업기술원을 통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40주 농법’을 접한 양씨는 2010년부터 최대한 성기게 모를 심기 위해 ‘50주 농법’을 적용해 벼를 재배했다. 수확량과 미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 반신반의하면서 재배했지만 오히려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적게 심는 ‘소식재배’에 확신을 가졌다.
- 2013년 40주 이앙이 가능한 이앙기를 구입한 양씨는 2013~2014년 3.3㎡당 40주로 모내기를 했다. 재배 결과 고품질의 쌀을 수확한 것은 물론이고 수확량이 기존 80주 재배와 비교하면 40% 정도 늘었다. 양씨는 “과거 80주 재배 때는 13만㎡(4만여평)의 논에서 70t가량을 수확했던 반면 지난해 40주 재배 때는 같은 면적의 논에서 100t가량을 수확했다”고 밝혔다.
- 양씨의 원칙은 간단하다. 첫째, 벼씨종자를 기존 방식보다 50% 이상 줄여 40kg 한가마로 육묘상자 270장에 파종할 것. 둘째, 기존 방식과 달리 모를 30일 이상 튼튼하게 키워 이앙하는 것. 그

다음에는 3.3m²당 40주 정도로 심되, 한번에 서너포기씩 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양씨는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모가 브이자(V자) 모양으로 자라면서 뿌리를 깊게 뻗어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고, 모 간 간격이 넓어 병해충 발생률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 양씨는 “모를 내고 두달이 지나면 벼가 가지치기(분얼)를 계속해 수확 무렵이 되면 벼단이 아주 두꺼워진다”고 말했다. 또 “무농약·유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농약을 단 한번도 뿌리지 않고 우렁이만 사용해 제초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민신문

9. 사업신청 안내

◆ 발작물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공모

- 공모기간 : 3. 11. ~ 3. 25.
- 공모대상 : 콩, 마늘, 양파 주산지로 5ha이상 생산 집적화단지 소재
영농조합 또는 법인
- 대상기종 : 파종(이식)부터 수확용 기계까지 일관기계를 선정
- 신청기관 : 주산지 시군에 사업신청

◆ 201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공개경쟁 선정 공고

- 접수기간 : 3. 10. ~ 3. 19.(10일간)
- 접수장소 : 전라남도 축산과
- 접수대상 : 농식품부, 식약처 HACCP컨설팅 등록업체
- 접수서류 : 제안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5. 3. ~ 12.(10개월간)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80, 도비 234, 시·군비 546, 자부담 1,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주간

전남농업정보 25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